뉴스경남

뉴스경남 - 경남도민을 대변하는 일간지

남해군 추석 앞두고 향토장학금 기탁 이어져

신차철 홈마트 대표 100만 원, 서상마을 문부경 씨 115만 5000원, 새남해농협 조합장 류성식·김순천 부부 100만 원

기사입력시간 : 2021/09/07 [14:19:00]

박도영 기자

▲ 서면 서상마을 문부경 씨 장학금 기탁식

추석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향토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신차철 홈마트 대표가 100만 원을 서면 서상마을 문부경 씨가 115만 5000원을 새남해농협 조합장 류성식·김순천 부부가 100만 원의 향토장학금을 각각 기탁했다.

신차철 대표는 “홈마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가 지역 후학들을 위해 쓰이길 바라며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향토장학금 기탁에 동참해 남해의 미래가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차철 대표는 마트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장학금으로 기탁해 오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두 번째 마음을 전하고 있다.

서면 서상마을 문부경씨는 남해바래길 231㎞를 5회 완주한 것으로 유명하다.

문 씨는 “길 위에서 느끼고 감동받으며, 많은 깨달음과 함께 건강까지 얻게 돼 바래길을 만들고 관리하는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픈 마음이 있었다”며 “231㎞의 거리를 5회 완주 후 1155㎞ 거리에 의미를 두어 1㎞당 1000원으로 환산해 115만 5000원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남해농협 조합장 류성식·김순천 부부는 “평생 소원이 배움이셨던 어머니 생각에,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의 후학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돼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